

부사어와 기능적 핵어*

이영현

(조선대학교)

Lee, Young-Hern. 2006. Semantic Representations of Adverbials and Their Functional Head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3), 31-5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device to describe the entailment between the sentences with adverbial and the sentences without adverbials, and the order of adverbials with respect to their functional heads. Both of subatomic semantics and λ -categorial grammars have some defects in description of entailment and the order of adverbials respectively. As a device of proper semantic representations we combine two semantics into a complex semantics. Especially there was no way to define the order of the adverbials if they have the same syntactic categories. However, we can give the definite order of adverbials or the scope of adverbials by the hierarchy of functional heads of adverbials. For instance, if the adverb "Palli(quickly)" in Korean sometimes represent the celerative aspect and "O-nul(today) tense, then "O-nul(today) comes before "Palli(quickly)" In addition to these, evaluative adverbs go before the evidential adverbs and selectional restriction between adverbials and verbs can be formalized by the functional heads.

주제어(Key words): 부사어(adverbials), 기능적 핵어(functional heads), 신속상(CELERATIVE ASPECT), 평가부사(evaluative adverb), 증거부사(evidential adverb)

1. 서론

부사어(adverbial)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형식 의미론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Davidson (1976), H-N. Castaneda(1967) 등에서 제시한 사건 의미론(event semantics) 또는 아원자 의미론(subatomic semantics)이고, 다른 하나는 Montague(1974)에서 제시한 λ -범주(λ -categorial) 의미론이다. 아원자 의미론에서는 문장부사

* 본 논문은 200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와 술부부사를 포함한 모든 부사어는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함으로써 통사적으로는 문장부사와 술부부사의 구분이 불필요하고, 의미적으로는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부사어가 들어있지 않은 문장을 함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λ -범주 의미론은 단순부사어로부터 복합 부사어를 형성하는 술어-수식어(predicate-modifier)기술 방안으로써, 부사어가 수식하는 피수식어에 따라 부사어의 범주가 결정되고 그 의미 역시 논항의 유형에 따라 부사어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의미 기술 방안이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의미론은 부사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아원자 의미론은 부사어가 들어 있는 문장의 함의 관계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사어의 통사적 범주에 따른 통사·의미적 차이점을 기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 동일한 부사라 할지라도 이들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functional head)의 상이에 따른 부사어 선·후행 관계를 기술할 수 없고, 부사어와 동사 선택제약에 따른 부사어의 수식관계를 기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런데 반해서 Montague(1974)의 λ -범주 의미론은 부사어의 통사·의미적 하위 범주와 유형에 따른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장간의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노정된다. 이렇듯 부사어의 하위 범주에 따른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고 부사어가 취하는 기능적 핵어의 상이에 따른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아원자 의미론과 λ -범주 의미론을 결합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아원자 의미론과 λ -범주 의미론을 통합한 새로운 기재를 틀로 삼아 부사어가 수식하는 피수식어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 그리고 부사어가 나타내는 핵어의 상이에 따른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 등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아원자 의미론과 λ -범주 의미론

2.1. 아원자 의미론

전통적으로 핵명제 표현에서 부사어는 비논항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Davidson(1976)에서는 문장부사와 술부부사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함으로써 이들 부사어는 사건과 관련된 논항으로 간주하였다.

(1)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 BUTTER(jones, the toast) \wedge p \wedge q
 where (p express 'slowly' and q express 'with a knife')

(1b)에서 보는 것처럼 *slowly*와 같은 술부부사는 물론이고 *with a knife*와 같은 문장부사(도구부사)를 서술어 *buttered*의 논항으로 간주한 것은 (1a)의 의미를 (2)와 같이 쓸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2)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 I believe it was slow.

B: I think it was with a knife.

where **It** means Jones buttered the toast, that is, an event.

($\exists e$)(e consists in the fact that Jones buttered the toast)

즉 (2a)의 술부부사 *slowly*나 문장부사 *with a knife*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한 것은 (2)A의 의미를 (2)B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B의 *it*는 명제(Jones' buttering the toast)를 나타내며, *slowly*와 *with a knife*는 *it*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이렇듯 술부부사는 물론이고 문장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함으로써 부사어를 수반하는 문장은 부사어를 수반하지 않는 문장을 함의 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3)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4)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b. Jones buttered the toast with a knife.

c. Jones buttered the toast.

(3)은 (4)의 각각의 문장을 함의한다. 즉 (3)은 (4a)는 물론이고 (4b), (4c)를 함의하며, 이러한 함의 관계를 보이기 위해서 (3)과 (4)의 의미를 아원자 의미적으로 기술하면 각각 (3)',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exists e$ (Butter(jones, toast, e) & Slow(e) & With(e, a knife))

- (4)' a.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Slow}(e))$
 b.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With}(e, \text{ a knife}))$
 c.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3)'이 (4)'의 각각을 함의 한다는 것은 피접속어 생략이나 논증형식의 단순화(simplification)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 (5) a. $p \ \& \ q \rightarrow p$
 b. $p \ \& \ q \ \& \ r \rightarrow p \ \& \ r$
 (6) a.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Slow}(e)) \rightarrow$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b.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Slow}(e) \ \& \ \text{With}(e, \text{ a knife})) \rightarrow$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Slow}(e))$

즉 (5a)의 $p \ \& \ q$ 가 p 를 함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a)의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Slow}(e))$ 는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를 함의한다. 이렇듯 사건구조 의미론뿐만이 아니라 사건구조 명제를 보다 더 작은 아원자 명제로 나타낸 아원자 의미론에서도 부사어를 수반한 문장의 함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 (7)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 \& \ \text{Slow}(e) \ \& \ \text{With}(e, \text{ a knife}))$
 c. $\exists e(\text{Butter}(e) \ \& \ \text{Subject}(\text{Jones, e}) \ \& \ \text{Object}(\text{toast, e}) \ \& \ \text{Slow}(e) \ \& \ \text{With}(e, \text{ a knife}))$

(7a)의 의미를 사건구조 의미론으로 표시하면 (7b)와 같고, 아원자 의미론으로 표시하면 (7c)와 같다. (7b)와 (7c)는 (7a)의 의미 표시이지만, (7c)는 (7b)의 원자명제 $\exists e(\text{Butter}(\text{jones, toast, e}))$ 를 아원자(subatomic) 명제 즉 $\exists e(\text{Butter}(e) \ \& \ \text{Subject}(\text{Jones, e}) \ \& \ \text{Object}(\text{toast, e}))$ 와 같이 3개의 더 작은 명제로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원자명제를 아원자명제로 분석하더라도 아원자 명제 사이의 함의 관계는 원자 명제의 함의관계와 동일하다. 따라서 Davidson(1976)의 사건구조 의미론은 물론이고 아원자 의미론 역시 부사어를 수반하는 문장의 함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사어 기술에 합당한 기재로 간주할 수 있다.

2.2. λ -범주 의미론

아원자 의미론과는 달리 Montague(1964)의 λ -범주적(λ -categorial) 의미 기술에 있어서 부사어는 술어-수식어(predicate-modifier)기술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즉 부사어는 피수식어의 범주에 따라 부사어의 범주가 결정되고 그 의미 역시 논항의 유형에 따라 부사어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의미 기술 방안이다. 그러나 Montague의 λ -범주적 의미 기술은 아원자 의미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사어를 수반한 표현의 함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없다.

(8)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b. John buttered the toast.

(9) a. (Slowly'(Butter'))(j, t)

b. Butter'(j,t)

(8)의 각각의 의미를 λ -범주언어로 기술하면 (9)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8a)는 (8b)를 함의하지만, (8)의 의미표시인 (8a)가 (8b)를 함의하고 있음을 형식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

술부부사뿐만 아니라 문장 부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a. Necessarily, he worked all day long. $\Rightarrow \Box(p)$

b. He worked all day long. $\Rightarrow p$

(11) a. John can walk possibly. $\Rightarrow \Diamond(p)$

b. John can walk $\Rightarrow p$

(12) a. $\Box(p) \rightarrow p$

b. $\Diamond(p) \leftrightarrow p$

(10a)는 (10b)를 함의하며 이러한 함의관계는 (12a)처럼 형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Box(p)$ 가 p 를 함의한다는 것은 논증형식이나 형식 논리상의 함의 관계가 아니라 의미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만일 (12a)의 함의 관계가 논증형식이나 형식적 함의 관계라고 한다면, (11)의 경우 (11a)는 (11b)를 함의하지 않기 때문에 (12b)와 같이 $\Diamond(p)$ 는 p 를 함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증형식상으로는 형식 논리상으로 합당한 주장이 되지 못한

다. 이렇듯 λ -범주 의미론에서는 부사어를 수반한 문장의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문제점이 노정되지만, 의미상으로는 (12a)와 같이 합당한 함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아원자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함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11)의 경우에도 논리식에 있어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 (13) a. John can walk possibly \leftrightarrow John can walk
 b. $\exists e(\text{Walk}(he, e) \ \& \ \text{Possible}(e)) \rightarrow \exists e(\text{Walk}(he, e))$ ¹⁾

(13a)의 *John can walk possibly*는 *John can walk*를 함의하지 않지만, (13b)에서 보는 것처럼 논리식에 있어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λ -범주언어적 의미 기술은 (9)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적 함의 관계를 기술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아원자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13)에서 보는 것처럼 비문법적 함의 관계를 문법적인 함의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따라서 아원자 의미론의 장점과 λ -범주 문법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이 둘 두 의미 기술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며, 부사어 기술에 대한 명시적 형식화가 가능할 것이다.

3. 몇 가지 문제점

아원자 의미론의 기본적인 틀은 사건의 지시, 사건의 양화화, 사건의 내적 구조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언어현상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려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Davidson(1976)에서는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함으로써, 부사어의 유무에 따른 문장간의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한다면, 통사적으로는 문장부사와 술부부사의 차이를 간과하게 될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부사어의 특성에 따른 논항의 차이점을 간과하게 된다. 특히 통사적으로 동일한 범주의 문장부사라 할지라도 기능적

1) 여기에서 조동사 can의 의미는 논의하지 않았다.

핵어의 상이에 따라 부사어의 수식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기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우선 부사어의 수식 영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inque(1999).

(14) 부사어의 기능적 핵어(functional head)

- a. 서법(mood); frankly speech act, [*probably* epistemic, fortunately evaluative, surprisingly, happily evaluative, evidently evidential, allegedly evidential
- b. 시제(tense); now present, yesterdsay past
- c. 상(aspect); quickly celerative, completely, no longer perfect

(14)의 부사들은 통사적으로 문장부사로 간주되지만, 의미상으로는 서법, 시제, 상을 나타낸다. 이 경우 서법이나, 시제 상은 부사어가 갖는 기능적 핵어²⁾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사어의 통사적 범주에 관계없이 모든 부사어의 논항을 사건으로 간주하고,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특성을 간과한다면 부사어 기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다.

첫째, 문장부사와 술부부사의 수식 기능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기술할 수 없다.

- (15) a. Susan danced elegantly yesterday.
- b. It was yesterday that Susan danced elegantly.
- c. *It was elegantly that Susan danced yesterday.

(15)의 술부부사 *elegantly*와 문장부사 *yesterday*가 각각 서로 다른 범주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들이 취하는 논항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즉 (13a)는 (15b)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반해서 (15c)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술부부사와 문장부사의 논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사를 모두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기술한다

2) 기능적 핵어란 통사적 핵어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예컨대 명사구(NP)의 통사적 핵어는 명사(N)라고 할 수 있지만, 명사구가 갖는 기능적 핵어는 예컨대 행위자(agentive), 주제(theme), 목표(goal)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치사구의 통사적 핵어는 전치사이지만, 전치사구의 의미적 기능 즉 위치(locative), 방향(direction) 등은 전치사의 기능적 핵어라 할 수 있다.

면, (15a)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16) $\exists e(\text{Dance}(e) \ \& \ \text{Agent}(\text{Susan}, e) \ \& \ \text{Elegant}(e) \ \& \ \text{yesterday}(e))$

이 경우 *elegant*(e)도 명제이고 *yesterday*(e)도 명제로 간주되며, 이들이 명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문법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7) a. I think it was yesterday.

b. I think it was elegant.

(18) a. It was yesterday that Susan danced.

b. * It was elegant(ly) that Susan danced.

(17)의 *it*는 사건(event)을 나타내기 때문에 (17a)의 *yesterday*와 *elegant*는 각각 *it*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18)의 *it*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Susan danced라는 명제를 나타내며, 이 경우 *yesterday*는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는 문장부사인데 반해서 (18b)의 *elegantly*는 *yesterday*와 같은 문장부사가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는 술부부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legantly*와 같은 술부부사와 *yesterday*와 같은 문장부사를 동일하게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하는 것은 합당한 의미기술이 될 수 없다.

둘째, 부사어가 나타내는 핵어의 계층적 순서를 기술하는 데 문제점이 노정된다. 부사어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적 핵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계층적 순서가 상이하다. Cinque(1999;77)가 제시한 부사어와 핵어의 계층적 순서³⁾는 다음과 같다.

(19) 부사어와 기능적 핵어의 계층
(Hierarchies of Adverb Phrases and FH⁴⁾)

3) Cinque(1999:154)가 제시한 한국어 동사구의 핵어 순서는 거울상 원리(Mirror Principle)에 입각하여 부사어가 나타내는 핵어의 순서와 동일함으로 보이고 있다.

Korean: Mood<speech act> Mood<evaluative> Mood<evidential> Mod<epistemic>
T(past)T(future) Mod Asp<habitual>/ Asp <progressive> Voice V

4) FH는 functional Head의 acronym이며, Cinque(1999:77)에서는 부사어와 부사어가 갖는 기능적 핵어를 [부사어 [기능적 핵어]] 예컨대 [*Frankly* Mood_{speech act}]로 표시한다. 즉 Frankly의 FH는 speech act mood라는 FH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한 영어표현이 없거나 적절한 기능적 핵어의 명칭을

[*Frankly* Mood_{speech act} [*surprisingly* Mood_{evaluative} [*allegedly* Mood_{evidential} [*probably* Mood_{epistemic} [*once* T_{past} [*then* T_{future} [*perhaps* Mood_{irrealis} [*usually* Asp_{habitual} [*already* T_{anterior} [*no longer* Asp_{perfect} [*always?* [? Asp_{retrospective} [?Asp_{durative} [?Asp_{progressive} [? Asp_{<prospective>} [*completely* Asp_{completive} [*quickly* Asp_{celerative} [? Asp_{iterative}

(19)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어의 계층 구조에 따르면 상을 나타내는 부사는 시간부사 다음에 나타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보다 선행하는 것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즉 부사어의 기능적 핵어는 Mood > Tense > Aspect >의 순서를 갖는다.

- (20) a. 오늘 철수는 빨리 일어났다.
b. *빨리 철수는 오늘 일어났다.

(20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20b)는 비문법적이다. (20b)가 비문법적인 것은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순서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20b)의 **빨리**는 신속상(Aspect_{celerative})을 나타내며, **오늘**은 시제(Tense)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상을 나타내는 부사어 **빨리**가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 **오늘**을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개의 서로 다른 부사는 이들이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순서에 따라 문법성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핵어의 순서를 간과하고 오직 부사어의 의미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하는 것은 부사어의 수식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이들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기술한다면, 부사어 **오늘**은 물론이고 **빨리** 역시 **일어나다**가 나타내는 사건 (일어나다(e))와 관련된 서술일 뿐 이들 사이의 순서를 결정해줄 수 방안이 없기 때문에 (20)의 두 문장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 (21) a. ∃e(일어나다(e) & 빨리(e) & Subject(철수, e) & At(e, 오늘))
b. ∃e(At(e, 오늘) & 일어나다(e) & Subject(철수, e) & 빨리(e))
c. ∃e(일어나다(e) & Subject(철수, e) & (빨리(e) & At(e, 오늘))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d. $\exists e$ ([일어나다(e) & 빨리(e)] & Subject(철수, e) & At(e, 오늘))

(2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사어 **빨리**와 **오늘**은 모두 사건(여기서는 **일어나다(e)**)와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할 경우 (20a)의 의미는 물론이고 (20b)의 의미 역시 (21)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부사어의 어순에 관계없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21)의 4개의 의미 표시가 동일하게 간주되는 것은 독립적인 명제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간과되기 때문이다.

(22) $p \& q \equiv q \& p$

(22)에서 보는 것처럼 명제의 연결 사이에는 선후관계에 따라 의미의 변화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20a)의 문법적인 문장은 물론이고 (20b)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도 동일한 의미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한다면 부사어가 갖는 기능적 핵어의 순서를 나타낼 수 없다.

셋째, 동일한 하나의 부사어라 할지라도 문장에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Travis (1988:292)).

- (23) a. John quickly lifted his arm. - event
- b. John lifted his arm quickly. - process

(23a)에서 *quickly*는 사건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로써 John이 팔을 올리는 사건이 빨랐음을 의미한다. 즉 John이 팔을 드는데 있어서 상대방보다 빨랐다는 의미일 뿐,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빨랐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23a)의 의미는 John이 느린 동작으로 팔을 들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quickly*는 명제와 관련된 서술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quickly*는 상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23b)에서는 올리는 과정이 빨랐음을 의미한다. 즉 John이 빠른 방법으로 손을 들었다는 의미이다. 즉 이 경우 *quickly*는 행위와 관련된 서술어이며 이 경우 상(여기서는 신속(celerative)상)을 나타낸다. 이렇듯 (23)의 *quickly*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한다면 *quickly*의 의미는 quick(e)로 기술할 수 있지만, *qucikly*가 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quick(e)로 기술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 부사어의 논항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하고 모든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논항으로 기술한다면 부사어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을 기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특히 영어의 *quickly*와는 달리 국어의 *빨리*는 명제와 관련된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행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24) a. 철수는 빨리 학교에 갔다. -중의적 의미
- b. 철수는 빨리 잠을 잤다. - 명제의 시점
- c. 철수는 빨리 걸었다. - 행위를 수식

(24a)가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첫째, 철수가 학교에 간 사건(명제)이 여는 때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하였음을 기술하는 경우와 둘째, 철수가 학교에 간 사건(명제)은 여는 때보다 늦은 시점에 발생하였으나, 가는 행위(즉 걸어가는 동작)가 빨리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낼 수 있다. 즉 (24b)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가 **빨리 잠을 잤다**의 의미는 잠을 자는 행위가 빨리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오직 잠을 자는 사건(명제)가 정해진 시간보다 이른 시점에 발행한 경우의 의미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잠을 자는 행위는 자의적으로 빨리 수행하거나 또는 천천히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반해서 (24c)의 경우에 있어서는 걷는 행위는 오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c)의 **빨리**는 오직 행위만을 수식하는 술부부사어이며, 이 경우 (24a)처럼 중의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듯 부사어 **빨리**는 (24b)에서 보는 것처럼 명제가 지시하는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24c)처럼 오직 행위만을 수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빨리**를 문장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한다면 **빨리**가 갖는 의미적 중의성을 기술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서법(mood)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하더라도 이들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의 논항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Clinique(1999:33)에 따르면 서법을 나타내는 부사 가운데 평가부사(evaluative)는 증거(evidential)부사⁵⁾ 앞에 온다는 것이다.

5) Speech Act adverb: *frankly, honestly, sincerely*
 Evaluative adverb: *(un)fortunately, luckily, regrettably, surprisingly, strangely, oddly (enough), (un)expetedly,*
 Evidential adverbs: *allegedly, apparently, obviously, clearly, evidently.*
 Time adverbs: *then, now, once already(anterior)*
 habitual adverbs: *usually,*

- (25) a. Fortunately, he had evidently had his own opinion of the matter.
 b. *Evidently he had fortunately had his own opinion of the matter.

이른바 평가(evaluative)부사는 사건의 상태를 기술하는 화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일 뿐 명제의 진리치와는 무관한 부사인데 반해서 *evidently, obviously, clearly* 등은 화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진리치와 관계있는 부사들이다⁶⁾. 평가부사가 증거부사를 선행하는 것은 화자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는 자의적인데 반해서 화자의 증거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사실은 가능성을 함의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사실을 함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평가부사는 증거부사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6) a. 다행히 철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말했다.
 b. *분명히 철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다행히 말했다.

(26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26b)가 비문법적인 것은 부사 **다행히**는 평가부사이며, **분명히**는 증거부사이다. 따라서 평가부사가 증거부사를 선행하는 경우 즉 (26a)는 문법적이지만 (26b)는 비문법적이다. 이렇듯 평가부사는 물론이고 증거부사도 문장부사이지만, 이들이 갖는 기능적 핵어의 특성에 따라서 선행관계가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계층구조에 따르면 증거부사는 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선행한다.

6) 증거부사는 문장부사로서 진리치와 관련된 부사라는 것은 다음의 (i)은 (ii)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 (i) a. *Evidently*, Bill has cheated in the exams.
 b. *Obviously*, the ball was over the line.
 c. *Clearly*, you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
 (ii) a. It is evident (evidently true) that Bill has cheated in the exams.
 b. It is obvious (obviously true) that the ball was over the line.
 c. It is clear (clearly true)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

- (27) a. 분명히 철수는 빨리 걸었다.
- b. *빨리 철수는 분명히 걸었다.

(27)의 **분명히**는 서법을 나타내는 증거부사이고 **빨리**는 상을 나타내는 상부사이다. (20)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계층 구조에 따르면 증거부사는 상부사에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27a)가 문법적인 것은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계층구조를 만족하는 데 반해서 (27b)가 비문법적인 것은 기능적 핵어의 계층구조 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부사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26b)와 (26b), 그리고 (27b)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어의 계층성을 보다 명백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상부사어와 시제부사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 (28) a. 이미 철수는 밥을 빨리 먹어 버렸다.
- b. *빨리 철수는 밥을 이미 먹어 버렸다.
- (29) a. 그때 철수는 빵을 빨리 먹었다.
- b. *빨리 철수는 빵을 그때 먹었다.

(28)의 부사어 **이미**와 (29)의 부사어 **그 때**는 모두 시제(Tense <anterior/past>)를 나타내고 **빨리**는 상(Asp<celerative>)을 나타낸다. 그리고 (20)의 핵어의 계층 구조에 따르면 시제는 상을 선행한다. 따라서 시제가 상을 선행하는 경우인 (28a)와 (29a)는 문법적이지만, 상을 나타내는 요소가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보다 선행하는 경우 즉 (28b)와 (29b)는 비문법적이다. 이렇듯 동일한 문장부사라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선후관계는 이들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 부사는 의미적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동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제약을 따른다. (Higginbotham 1995, Rochette 1993). 이러한 선택 제약은 동사구가 갖는 의미적 속성과 부사어가 갖는 의미적 속성 가운데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이다.

- (30) a. Melanie talked endlessly.
- b. ?? Melanie finished her book endlessly.
- (31) a. Steve finished his book quickly.
- b. ?? Steve slept quickly.

(30a)가 문법적인 것은 동사 *talk*가 나타내는 의미적 속성과 부사어 *endlessly*가 나타내는 의미적 속성 가운데는 공유하는 속성 [+INFINITE LENGTH]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talk*와 *endlessly*는 공기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30b)가 비문법적인 것은 동사 *finish*는 [+INFINITE LENGTH]라는 속성이 없는데 반해서 부사어 *endlessly*는 [+INFINITE LENGTH]라는 의미적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동사와 부사 사이에는 의미적 충돌이 야기된다. 마찬가지로 (31a)에서는 동사 *finish*와 부사어 *quickly*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법적이지만, (31b)에서는 *sleep*와 *quickly*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1b)는 비문법적이다. 이렇듯 부사어와 동사 선택제약은 각각의 의미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사-부사어 공기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각각의 부사어는 기능적 핵어가 상이하고, 이들 핵어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의 선후관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동사와의 관계에서 공기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각각의 부사어는 수식 대상이 다르고, 의미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사어를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한다면 부사어의 특성을 간과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부사어 사이의 공기제약은 물론이고 부사어 선택제약을 어기게 되어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4. 통합 의미론

앞에서 지적한 부사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원자 의미론과 λ -범주 의미론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우선 술부부사와 문장부사어의 논항에 따른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사의 범주에 따른 의미표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2) a. 빨리 = $\lambda P\lambda e[P(e) \ \& \ \text{빠르다}(e)]$
 b. 빨리 = $\lambda P\lambda t[P(t) \ \& \ t < t_i(t)]$

(32a)에서 보는 것처럼 술부부사 **빨리**는 동사와 결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동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곧 부사어가 나타내는 사건과 동일한 경우이다. 그리고 문장부사는 사건이 아니라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한 것이므로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문장

은 사건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부사라 할지라도 시간부사는 시점을 명시해 주어야 하며, 명제와 시점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부사어의 의미는 부사어의 범주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의미기술을 갖게 되며, 통사적으로 동일한 범주의 부사라 할지라도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에 따라 부사어의 수식 대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부사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수식대상에 따라 논항이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기능적 핵어의 특성에 따라 논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3) a. John walks slowly.
 b. Possibly John does it.
 c. John met Mary yesterday.
- (34) a. $\exists e([\text{walking}*(e) \ \& \ \text{slow}*(e)] \ \& \ \text{Subject}(j, e))$
 b. $\lambda P[\text{Possible } P](\exists e(\text{Do}(e) \ \& \ \text{Subject}(J, e) \ \& \ \text{Object}(it, e)))$
 $\Rightarrow \text{Possible}(\exists e(\text{Do}(e) \ \& \ \text{Subject}(J, e) \ \& \ \text{Object}(it, e)))$
 c. $\lambda P \lambda t[P(t) \ \& \ \text{yesterday}(t)](\text{John met Mary})$
 $\Rightarrow \lambda P \lambda t[P(t) \ \& \ \text{yesterday}(t)](\lambda e(\text{Meet}(e) \ \& \ \text{Subject}(J, e) \ \& \ \text{Object}(M, e)))$
 $\Rightarrow \lambda t[(\exists e(\text{Meet}(e) \ \& \ \text{Subject}(J, e) \ \& \ \text{Object}(M, e)))(t) \ \& \ \text{yesterday}(t)]$

(33)의 의미는 각각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4a)에서 보는 것처럼 술부부사 *slowly*는 *walking*과 공기할 수 있는 선택제약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는 공유하는 의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의미적 속성은 서로 교를 이루기 때문에 *slowly*는 *walking*을 수식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4b)의 *possibly*는 문장부사로서 사건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34c)의 시간부사 *yesterday* 역시 문장부사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는 주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듯 아원자 의미론에 λ -범주 의미론을 도입하면 부사의 통사적 범주에 따른 의미적 특성을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 핵어의 계층적 순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아원자적 의미론과 λ -범주 의미론을 결합한 통합 의미론을 도입할 경우 이들 사이의 순서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예컨대 부사어의 핵어가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을 나타내는 경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선행하는 경우에만 적격 표현이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

다.

- (35) a. 오늘 철수는 빨리 일어났다.
- b. *빨리 철수는 오늘 일어났다.

즉 (35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35b)가 비문법적인 것은 상부사가 시제부사를 선행하기 때문이다. 즉 시제부사는 상부사를 선행하는 하는 것이 부사어의 일반적인 어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할 경우에는 이들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를 명시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사어가 갖는 기능적 핵어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제부사와 상부사가 선후행 순서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36) a. $\lambda P\lambda t[\text{오늘}(t) \ \& \ P(t)](\exists e [\text{일어나다}(e) \ \& \ \text{빨리}(e) \ \& \ \text{Sub}(\text{철수}, e)])$
 $\Rightarrow \lambda t[\text{오늘}(t) \ \& \ (\exists e[\text{일어나다}(e) \ \& \ \text{빨리}(e) \ \& \ \text{Sub}(\text{철수}, e)])](t)$
- b. $*\exists e[\text{빨리}(e) \ \& \ \lambda P\lambda t[P(t) \ \& \ \text{오늘}(t)](\exists e [\text{일어나다}(e) \ \& \ \text{Sub}(\text{철수}, e)])]$
 $\Rightarrow * \exists e[\text{빨리}(e) \ \& \ \lambda t[(\exists e [\text{일어나다}(e) \ \& \ \text{Sub}(\text{철수}, e)])(t) \ \& \ \text{오늘}(t)]]$

(36a)는 부사어가 전환(conversion)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36b)는 부사어 전환의 순서가 정해지 않은 경우이다. 즉 (36a)와 (36b)의 중요한 차이점은 [오늘(t)]의 순서이다. 부사어 **오늘**이 부사어 **빨리**보다 상위의 수식영역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사어의 전환 순서를 결정해주는 기제가 필요하며, (36a)에서는 $\lambda t[\text{오늘}(t) \ \& \ P(t)]$ 의 $\lambda t(\text{오늘}(t))$ 은 λP 의 논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사어 **빨리**가 부사어 **오늘**을 선행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35a)의 문법성을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또한 서법을 나타내는 부사어라 할지라도 이들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는 계층적 순서가 상이할 수 있다.

- (37) a. Fortunately, he had evidently had his own opinion of the matter.
- b. *Evidently he had fortunately had his own opinion of the matter.

- (38) a. 다행히 철수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말했다.
 b. *분명히 철수는 자신의 문제를 다행히 말했다.

Cinque (1999:33)에 따르면, (37)의 *fortunately*와 *evidently*는 동사의 서법 (mood)를 나타내지만, 평가부사로 쓰이는 *fortunately*는 증거부사로 쓰이는 *evidently*보다 상위의 수식영역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38a)의 다행히는 물론이고 분명히를 역시 서법을 나타내는 부사어이지만, 평가부사 다행히는 증거부사 분명히를 선행하는 경우에 문법적 표현이 된다. 즉 (38b)가 비문법적인 것은 이들 부사어의 선행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사적으로는 평가부사나 증거부사는 모두 문장부사로 간주되지만, 이들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순서가 상이하다. 즉 평가부사는 증거부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은 (20)에서 보았던 부사어의 계층적 구조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부사가 증거부사에 선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39) Mood = $\lambda P \lambda Q [P \dots Q \dots]$ (Mood_{<evidential>})(Mood_{<evaluative>})

- (40) a. 다행히 철수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말 할 수 있었다.
 b. $\lambda P \lambda Q [P$ 철수는 Q 자신의 문제를 말한다.] (분명히)(다행히)
 $\Rightarrow \lambda Q [$ 다행히 철수는 Q 자신의 문제를 말한다.] (분명히)
 $\Rightarrow [$ 다행히 철수는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말한다.]
 $\Rightarrow \lambda Q [$ 다행히 철수는 Q 자신의 문제를 말한다.]
 \Rightarrow 다행히[$\exists e$ (말하다(e) & 분명히(e) & Sub(철수,e) & Obj(문제, e)]

(39)의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배열규칙에 따라 부사어가 취하는 논항의 순서를 따를 경우 (40a)는 (40b)와 같은 도출과정을 거치게 되어 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마지막으로 동사-부사어 선택 제약의 문제는 아원자 의미론에 의하여 보다 명료하게 기술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41) a. 철수는 빨리 갔다.
 b. * $\exists e$ (자다(e) & 빠르다(e))

사건 자다(e)와 사건 빠르다(e)는 공유하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다와 빠르다가 e를 공통의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자다(e)는 상태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빠르다(e)는 행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임의의 사건 e가 상태이면서 동시에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41b)는 비문법적인 의미표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a)를 문법적인 표현으로 간주할 경우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사어 빨리는 상을 나타내는 상부사어가 아니라 시제부사어이며 이 경우 빨리는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부사어를 수반하는 문장의 함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사어의 피수식어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 그리고 부사어가 나타내는 핵어의 상이에 따른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원자 의미론은 부사어를 수반하는 문장의 함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용이하지만, 부사어의 수식 대상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이나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를 기술하는 데는 제한적이며, λ -범주 의미론은 부사어를 수반한 문장의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제한적이지만,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를 기술하는 데는 용이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원자 의미론과 λ -범주 의미론을 통합한 아원자적 λ -범주 의미론에 의하여 부사어의 통사적 범주에 따른 함의 관계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사어의 중의적 의미와 부사어의 선·후행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특히 통사적으로 동일한 부사라 할지라도 이들 부사어가 나타내는 기능적 핵어의 상이에 따라 부사어의 수식영역의 차이를 논의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영어나 국어의 부사어 빨리가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경우, 시제가 상을 선행할 수 있으나, 상이 시제를 선행할 수 없음을 형식적으로 기술하였고,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 수식영역의 차이를 기능적 핵어의 순서에 의하여 형식화하였다. 나아가서 평가부사는 증거부사를 선행한다는 사실을 형식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사와 공기하는 동사의 선택제약의 현상을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 이영현. (1984). 『양화사의 의미표시와 해석』, 한신문화사
- 이영현, 유재근. (2003), 『의미론의 신경향』, 한국문화사
- 이환목. (1993). 국어 함수표현에 관한 연구: “아니, 또, 도“ 박사학위, 서울 대학교 대학원.
- Bach, E. (1981). On time, tense, and aspect: An essay in English metaphysics. In P. Cole(Ed), *Radical Pragmatics*, pp. 63-81. New York: Academic Press.
- Bach, E. (1986). The algebra of event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 Borer, Hagit (2005), *The Normal Course of Events*, Oxford, Oxford Univ. press.
- Castaneda, H-N. (1967). Comment on D. Davidson's "The Logical Forms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inque, Guglielmo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Holland: D. Reidel.
- Ernst, Thomas (1992),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ton, A. (1985). *The Logic of Aspect*. Oxford: Clarendon Press.
- Montague, R. (1974).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Formal Philosophy*, Massachusetts, The Mruuay Printing Co.
- Higginbotham, J. (1995). Mass and Count Quantifiers in Bach, E. et al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 Kluwer, Dordrecht,
- Hinrichs, E. W. (1985).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Aktionsarten and NP Reference In English*. Ph. 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Jackendoff, E. G.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Cambridge, MA: MIT Press.

- Katz, G (1999) Anti neo-davidsonianism: Against a davidsonian for state sentences. In C. Tenny and J. Pustejovsky (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Moltmann, F. (1999). Measure adverbials. *Linguistics and Philosophy* 6(17), pp. 629-660.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Cambridge, MA: MIT Press
- Rochette, A. (1993). The selectional properties of adverbs, in *Papers from the 26th Regional Meeting of CLS*.
- Tenny, C and J. Pustejovsky (ed.), (2000),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Stanford.
- Thomason, R. H. and R. C. Stalnaker (1973). A semantic theory of dverbs, in *Linguistic Inquiry* IV (2), 195-220.
- Travis, Lisa. (1988), The Syntax of Adverbs, in *McGi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McGill University.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Zucchi, A. (1999). Incomplete events, intentionality and imperfective aspect, in *Natural Language Semantics* 7, 179-215.

이영현

501-759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과

전화 (062)-230-6933

이메일: younglee@chosun.ac.kr

Received: 30 Jun, 2006

Revised: 7 Sep, 2006

Accepted: 13 Sep, 2006